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음 6월 19일) 제16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도 탄소산업 육성 '지금이 적기'

탄소법 제정 따른 정책세미나

“독일 등 기술 선진국처럼 국가 차원 로드맵 마련을”

송 지사 “정부 등과 함께 산업 발전방향 모색할 것”

전북도가 추진하는 탄소산업을 독일 등 기술 선진국처럼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의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3명과 공동 주최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탄소법 제정에 따른 탄소산업 발전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운천·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광수·장병완 의원·새누리당 이채익·김규환·정유섭 의원과 김성주 전 의원·탄소소재 부품 산업정책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 한국탄소학회 조동환 회장을 좌장으로 하성규 한양대 교수 등 국내 탄소산업 전문가 8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하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탄소소재 4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 기업 역



21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탄소법제정 탄소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송하진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 의원을 비롯, 국회의원들, 탄소관련 전문가들이 탄소산업 성장을 기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신역량 제고, 기술사업화 및 관료지원, 제도적 기반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법 제정에 따라 국가가 수립하는 탄소 용·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는 중장기 산업육성계획,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소산업 전담부서 신설과 탄소 선진국과 격차 해소를 위한 탄소복합체 허브구축 등도 주문했다.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

서 그동안 탄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노력을 통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자”고 말했다.

김준경 KIST 전북분원장은 “현재 탄소 분야 기업지원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만, 인프라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국내에 흩어져 있는 인프라에 각 기업이 연결될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수진(인하대) 교수는 기존 대학의

탄소산업 전문과정을 학사과정 외에 기초과학연구소(IBS) 유치 또는 관련 대학원(석·박사) 과정도 적극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방운혁 효성 상무는 국가주도로 국내 탄소 연구개발(R&D) 인프라 네트워크를 수직적(소재-제품)인 방향과 수평적(적용분야별) 방향으로 동시에 구축하고, 서로의 정보와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창출해 이를 상용화·사업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지사는 “탄소산업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소, 기업 등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꾸준히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법은 2014년 5월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쟁점법안으로 위키면서 2년여 간 표류하는 여여폭결 끝에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민형 기자

## 도내 지자체 대부분, 교육 투자에 인색

남원·무주 제외 예산 대비 투자 비율 평균에 못미쳐... 순창은 편성 안해

도내 지자체들의 교육환경 개선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급식, 교육시설 환경 개선 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 전국 227개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는 교육에 총 5,230억원을 지원했으며 총예산 대비 보조비율이 평균 0.20%로 조사됐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총 예산 대비 교육 투자 비율 평균에 못 미치는 지

역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남원시가 일반회계 최종예산 4,944억원 중 17억4,175만원(0.35%)을 무주군은 2,587억원 중 6억9,460만원(0.27%)을 투자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반면에 완주군은 0.24%, 고창군 0.22%, 정읍시 0.21%, 장수군 0.17%, 군산시 0.16%, 부안군 0.14%, 진안군 0.13%, 김제시 0.12%, 전주시 0.10%, 익산시·임실군 0.06% 등의 순으로 교육투자비율이 낮았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교육투자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여수시(1.04%)를 비롯해 12개 시군에서 전국 평균을 넘는 예산을 편성,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교육 시설 개선 사업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원 규모가 클 수록 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좋아지기 마련이다. /신광영 기자

## 가마솥 처럼 폭폭 찌는 전북... 3개 시군 '폭염경보'

전주·익산·완주에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2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최고기온은 정읍 33.2도를 비롯해 완주 33도, 익산 32.4도, 군산·부안 31.9도, 김제 31.8도, 전주 31.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기상지청은 오후 들어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전주와 익산, 완주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대체했다. 전북에서 폭염경보가 내려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주와 익산, 완주는 폭염경보가 군산과 정읍, 김제, 부안, 고창, 임실은 폭염주의보가 각각 내려진 상태다.

이번 더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3일 한 풀 꺾였다가 이후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한편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일 최고기온이 32도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박용주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연희-전주박물관 품다!

한여름에 펼쳐지는 전통공연예술 한마당

30일 박물관 강당서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는 30일 오후 4시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연희-국립전주박물관 품다!’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외부전문가 또는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화 수요를 반영해 추진하는 문화융성 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을 찾는 주말 관람객을 대상으로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이고자 기획했다.

‘연희-국립전주박물관 품다!’는 타악 퍼포먼스 ‘환희’와 한국무용 서한유류 ‘버귀쭈’, 민요 ‘쑥대머리, 배 띄워라’, 비보이 댄스 ‘Max of Soul’, 국립전주박물관 공연단 ‘실장구’, 사물놀이 ‘선반 판과 개인놀이-채상소고놀이, 버니놀이, 열두발놀이’ 등 전통예술 및 타악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특히 이날 공연은 타&올림에 솔원을 비롯해 도내 예술인, 국립전주박물관 공연단이 함께해 지역문화 공연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관람신청은 22~29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jeonju.museum.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다. 공연 관람은 무료. 문의 220-1013. /정해은 기자

▶ 매일 INDEX

2면 초대 대테러안보관에 공안검사 출신

3면 도의회 후반기 시작부터 ‘홍역’

4면 ‘여고생 성희롱 교사 중징계법’

7면 ‘가게대출 증가세, 하반기 둔화’

**남원에촌** NAMWONYECHON BY KENSINGTON

천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하다

남원시와 (주)이랜드 파크가 함께하는

### 명품 한옥 '남원에촌 by 켄싱턴' 그랜드 오픈!

‘고즈넉한 여유와 힐링이 있는 명품 한옥에서 자연을 벗삼아 느낌에 머물다!’

남원 에촌은 최기영 대목장을 비롯한 문화재 명장들이 옛 조선들의 지혜와 가치를 살리고 공정마다 혼을 담아 순수 건축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명품 한옥입니다.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063-620-6174 남원에촌 by 켄싱턴 : 063-636-8001-8003 www.NAMWONYECHON.com